

효율관리 '공감' ... 적용범위 '논란'

조계종 '법인관리법' 입법예고 파장

27일 개인하는 조계종 임시중앙총회를 앞두고 불교관련 법인단체에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의 발원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찰은 물론 승려가 설립한 각종법인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관리법은 정관에 "대한 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총통을 받는다"와 법인의 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를 다수로 함"을 문구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선학원 대각회를 비롯 기타 사찰을 관장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는 조계종 승려가 2/3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해산 할 때는 잔여재산(재)불교중앙교원 또는 종단의 유사업인에 귀속토록 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은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법인관리법은 불교중앙교원, 동국학원 등 종단에서 출원한 법인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상호협력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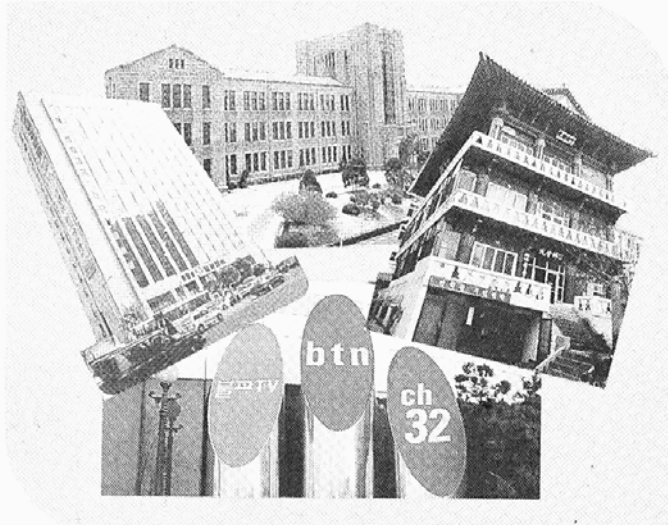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범위가 비영리, 영리법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법인들의 조계종 귀속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관련 법인의 실무자들은 "법인은 민법이 인정하는 인격이 있는 것으로 종단에 귀속시키고자 하는것은 사회법에서 중간관리 하겠다는 옥상옥이다"며 "종단에서 출원한 법인 이외에는 법인관리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인관리법을 입안한 담당자들은 "종단의 상보정제로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조계종지와 총통을 받는다"며 "종단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재)선학원 (재)대각회 (재)불교방송 (주)불교텔레비전 등이 법인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계종의 정관개정 요구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선학원측은 이미 "법인산하에 조계종 이외의 종단소속 사찰이 등록되어 있어 정관개정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며 "종단에서 정관개정을 이유

◇조계종이 입법예고한 법인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될 처지에 놓여있는 선학원·동국대·불교TV·불교방송 건물.



정재유실 방지·법인공조 필요 제정 인사개입 등 불필요한 간섭에 반발

로 선학원소속 스님들을 징계할 경우 분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측도 "불자들의 원력과 힘을 모아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조계종이 관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법인관리법을 평가절하했다. 현실적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관리법의 적용은 이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6월, 117회 총회에서 법인관리법 제정안이 상정되면 서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중앙총회와 총무원간의 이견으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118, 119회 총회에서도 잇따라 유보된 바

있다. 당초 법인관리법은 종단 분류로 중앙 총통력이 약화되면 서 법인들의 탈종단화 현상이 일자 개혁종단이 정재 유실을 막고 법인 상호간 공조체제를 위해 마련됐다.

교계 일각에서는 "종도들의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 졸속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입법예고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준엽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내년입시에 중점 생활기록부를 입시총점의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의 경우를 보면 종합생활기록부(이하 종합부)를 40% 반영해 있는데 이중 교과성적은 80%, 출석 10%, 면접 5%, 행동 3%, 봉사 1%, 수상 1%를 반영하며 특성을 살려 수상경력중 요행 학생을 일정정도 선발하고 교과성적반영 4과목중 윤리 과목을 계열에 상관없이 전 대학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선발방침은 각 대학이 고교 '종합부'의 과목별 학업성취도와 석차백분율을 표시하고 문장으로 기록된 주관적인 평가를 자율선발에 따라 입시전형에 반영이 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같은 종합부는 전과목을 합산하여 평균에 따라 석차를 가름하는 기존의 생활기록부와 달리 각 과목별로 학업 성취도와 석차 백분율을 표시토록 돼 있고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특기, 특별, 단체, 봉사활동이 새로이 입시평가자료로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생부는 특별활동상황에서 단체 활동에서는 청소년교회연합회나 결성준비중인 청소년불자연합회 파라마타 등 각종 청소년 단체에서의 활동내용이 기록되며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았거나 추천을 받은자는 학교사정위나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에 따라 1년에 1점의 봉사

이외하게 고교입시의 경우도 98년부터 중생부 봉사활동 점수가 입학전형시 총점의 8%를 반영토록 하고 있어 중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는 일손돕기, 위문, 지도, 캠페인, 자선 구호, 환경 시설보전, 지역 사회개발활동 등 7개 영역이 제시되어 불교관련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관심이

시설도 타종교보다 복지단체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불교종립학교나 불교학생회를 겨냥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자학생들을 수용하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또 사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장려된다. 학생들이 전통사찰 주변을 깨끗히 청소하면 환경시설 보전활동과 문화재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찰에서도 중생부를 주관하고 있는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선정하는 봉사대상목표를 기재하도록 통보하고 각 사찰단위에서도 사찰주변 청소, 부처님 오신날 봉사활동 확인서나 수련대회 수료증 발급을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보유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활동을 학생을 인정받아 중생부에 기록된다 불자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교계 1급 지도사(현재 7명)들도 불자학생들을 수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교계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김원우 기자

사찰·단체 수료증 제도화 해야

초·중·고교 '종합생활기록부' 시행과 연계 대책

각급학교 연계 봉사활동 다양화 필요

활동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학생회와 사찰봉사활동도 중생부에 기록돼 대학의 평가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와 연계가 안돼 봉사실적이 나 단체지도 및 입실실적이 있더라도 중생부에 등재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되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초·중·고교학생회는 불교청소년단체의 가입이 시급하다.

전국의 1백45개 불교복지시설중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계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9곳, 아동복지시설 17곳, 부랑인복지시설 3곳, 사회복지관 29곳, 병원 11곳 등 총 6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불교청소년단체는 불교복지단체들과 결연을 갖는 등의 노력과 불교복지

시론 정직한 목소리가 그림다

4·11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저마다의 색깔 드러내기로 분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후보자들간의 경쟁도 가히 필사적이다. 언제나 이맘때쯤이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수의 애국지사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우국충정을 담은 고단 준론에 상대방을 힐뜰는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세는 말의 성찬만으로 끝나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언어의 두가지 기능

인간의 언어에는 두가지 기능이 있다. 지성적 언어는 상대방에게 관조의 여유를 주며 차분하게 한다. 그러나 감성적 언어는 상대방을 흥분시키며, 자극시킨다. 그래서 인간의 숨겨진 야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곤 한다. 불행히도 정치인의 언어는 후자에 속한다.

특히 대중장연이라는 속성때문에 남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일에만 몰두할뿐, 지성적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감성에 호소하다가 보니 험연, 지진, 동창 등의 공감대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언어의 후안성과 한계성을 부정하게 비판할 시점이다. <도덕경>에서 말한대로 "아름다운 말은 믿음성이 없고, 믿음성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은 법이다(美言不信 信言不美)".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느 특정종교를 가진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무종교인 자유도 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심정적으로 그가 우리 종교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태도이다. 문명정부 출범 이래 불교인들의 여당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 이유로 대통령의 종교 때문이라는 것은 꼭 시사적이다. 청와대 예배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육군법당 예배의 일 등으로 불교계의 반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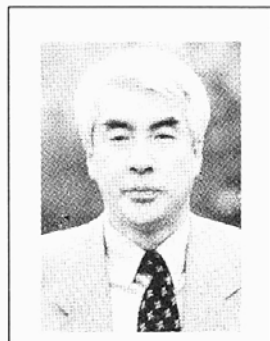
나는 전연에 불국사 법당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뱃뿔한 기립자세를 영 잊을 수가 없다. 초대된 일본총리는 합장한 채 머리를 숙였고, 우리 대통령은 차렷 자세에서 목례를 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가. 토함산의 어른은 부처님이다. 부처님께 합장한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다. 더구나 당시의 일본총리는 목실한 가톨릭신자였다. 불교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종이 아니다. 자신에게 개신교가 소중하듯이, 불교인에게 불교는

소중하다는 평범한 인식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이제 눈길을 불교계 내부로 돌려본다. 운동 감성적 흥분만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개신교 대통령이 나왔다고 불교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불교없는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예수교는 이들이 집단으로 해외이주를 하는 것도 아니잖는가.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현실 정치 참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적 가치기준과 현실적 정치풍토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의 정치참여가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성인군자들만 뽑으면 된다. 종교는 정치에 초연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계도할 뿐이지, 꼭 특정종교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돈안드는 선거로 치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앞서 선량후보들의 유세가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멍(口實)이다. 불교의 가치기준으로 말한다면 얽은 상(相)의 상자이다.

즉 스스로 지은 허물은 결국 스스로에게로 되돌려지며 그 업은 또다른 결과로 다(美言不信 信言不美).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느 특정종교를 가진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무종교인 자유도 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심정적으로 그가 우리 종교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태도이다. 문명정부 출범 이래 불교인들의 여당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 이유로 대통령의 종교 때문이라는 것은 꼭 시사적이다. 청와대 예배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육군법당 예배의 일 등으로 불교계의 반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

진짜와 가짜 가리는 힘

불교인들이 감성에 치우쳐서 판단을 흐린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보나 마나이다. 불지란 반야(般若)를 지닌 이들이 늘어야 한다. 반야를 계속적으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힘이다. 가짜란 언제나 진짜처럼 보이는 법이다. 그뿐 아니라 감언이설과 거짓 모습으로 상대방을 현혹하기 마련이다. 마치 세균이 음습한 곳으로 침투하듯이 인간이 가진 나쁜 심리, 병적 집착, 보살심리 등을 파고 들면서 끝내 최면처럼 진짜로 둔갑해 간다. 자신의 죄악은 스스로가 받는다고 해도 그것에 현혹된 우리 또한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종의 업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대지를 택오(羯磨)의 지옥으로 만들어 갈 뿐이다.

정직한 목소리가 그림다. 의연하면서도 겸손한 참 선량을 찾자. 이번 선거는 불자들의 참속된 의식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證明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月下 大宗師

雲鶴山中
九龍噴水

민족평화통일 · 2002년 월드컵한국유치 · 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제전

영축산
통도사 비구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포교·복지·장학봉사의 후원을 위해 지난 한 겨울동안 한점한점 기도하며 밤새워 그려낸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 대법회 : 1996. 3. 21(목)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 2층 전시관

• 불교문화대강좌 : 3. 21 ~ 23 오전 11시 (10층 대강당)
• 작 품 전 : 3. 21 ~ 3. 24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 (부산일보사 2층 전시관)

- 초 청 법 사 :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암도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서윤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류시화 선생(시인)
- 불자연예인 공연 : 김병조(방송인), 김홍국(불자가수회장), 김혜련(가수), 두레 외
※ 기념품 증정 : 참석하신 불자님께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그린 길상도가 새겨진 호신불 목걸이와 아름다운 길상도 엽서세트, 손염주등을 정성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중앙불교아카데미
금강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29
TEL: (051)621-8548 ~ 9 FAX: 625-2741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현대불교신문사

BBS 불교방송 · bntv 불교텔레비전 32
• 서울 소림불교 장학회 • 창원 구룡사신도회

